

## C\_M\_068 자원당

### ① 개요

자원당본풀이는 애월읍 하가리에 있던 자원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 밭에서 김매던 사내가 비를 피하는 사이에 심심풀이로 흙으로 빚어 만든 동자석이 신령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.

### ② 내용

옛날 자원당에서 한 사내가 김을 매다가 갑작스런 비가 내리니 울타리 곁에서 쉬게 되었다. 사내는 손에 붙은 진흙으로 동자석을 만들어서 담구멍에 세우면서 “널랑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정이나 받아먹으며 살라.”고 하였다. 일년이 지난 뒤에 그 사내가 병들어 문점을 하니, 손으로 만진 죄, 입으로 군소리한 죄, 눈으로 본 죄 때문이라고 하였다. 심방을 청해서 궂을 하니 병이 나았다. 하루는 사내가 그곳으로 가서 담구멍을 살펴보니 동자석이 그대로 있었다. ‘이게 무슨 신령이 있겠느냐?’하고 꺾어버리니 피가 불끈 났다. 그 뒤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서 던지든지, 다님을 풀어 던지든지, 하다 못해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서 인정을 걸어야 곱게 넘어갈 수 있었다.

### ③ 특징

한림읍 수원리 여무 고봉아가 전승한 자료이다. 자원당은 실상은 당이 아니다. 우연히 흙으로 빚은 동자석이 신력을 발휘한다는 사례이다.

### ④ 핵심어

동자석, 인정, 심방, 궂, 신발, 다님, 돌멩이, 자원당, 하가리

### ⑤ 원전 서지사항

자원당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### ⑥ 관련 자료